군정톡톡

## 익산시, 14일~18일까지 연휴기간 산불방지 비상근무 체계 가동

익산시는 14일부터 18일까지 추석연휴 기간 동안 산불방지 비상근무 체계를 가동한다.

시는 최근 계속되는 폭염과 가뭄으로 산림이 건조해 추석연휴기간에 성묘·벌초·등산객에 의한 산불 발생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산불 방지를 위한 비상근무 체계에 들어간다.

이에 산불대책상황실을 가동해 산불발생 시 초동대처하고, 유관기관과의 비상공조체계를 유지하여 조기진화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시 산림공원과 관계자는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에 따라 불씨 취급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등산객 등은 산불발생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줄 것과 산불 발생 시 조기진화 될 수 있도록 익산시 산불상황실, 소방서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익산=장양원기자

군산근대역사박물관, 14일~18일까지

# '근대마을 추석 한마당 큰잔치'

### 떡메치기 · 제기차기 · 투호던지기 등 체험프로그램 다채

군산근대역사박물관이 귀성객들에게 고향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14일부터 18일까지 '근대마을 추석 한마당 큰잔치' 행사를 개최한다.

이 기간 동안 한복을 입고 박물관을 방문하면 무료로 입장할 수 있으며, 추석 당일인 15일에는 모든 시민에게 무료로 개방한다.

한마당 큰잔치 행사에서는 떡메치기, 제기차기, 투호던지기 등 전래민속놀이와 어린이 낚시놀이, 페이스페인팅 등 체험행사와 인절미, 전통차 등 먹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며, 다양한 전시 및 공연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박물관 본관에서는 '근대도시 군산 독도와 함께하다'라는 주제의 특별전이 열리며, 별관인 근대건축관에서는 근대건축물 전시, 근대미술관에서는 전북도립미술관 초대전 '탁류가 끝나는 곳', 장미갤러리에서는 하빈영 화가의 작품전시회가 열린다.

이밖에도 소담소리아트 민요공연과 타악공화국 흙소리 사물놀이공연, 쓰리신밴드, 산영라이브, 포크그룹 숲의 버스킹공연도 예정되어 있다.

박물관 관계자는 "명절을 맞이하여 고향을 찾은 귀성객들이 박물관에서 준비한 다양한 전통문화 체험과 공연을 통하여 가족들과 즐거운 연휴를 보낼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군산=문정곤기자

군산금강철새조망대, 추석 연휴 프로그램

## '앵무새 손 먹이주기 체험'

군산금강철새조망대가 추석 연휴 동안 군산을 방문하는 관광객과 귀성객을 위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추석연휴 기간 오후 2시부터 4시에는 철새조망대에서 찍은 가족사진을 배지로 제작해주며, 16일과 17일 오후 3시부터 4시에는 '앵무새 손 먹이주기 체험'을 실시해 관람객들에게 더욱 특별한 시간을 선사할 예정이다.

철새조망대는 추석 연휴기간에도 평소와 같이 오전 10시부터 저녁 6시까지 운영하며, 1층 영상관과 상설전시장을 비롯해 수족관, 전망대, 조류공원, 부화체험관, 식물생태관 등 모든 시설을 정상 운영한다.

특히 추석 당일인 15일에는 무료로 운영될 예정이다.

황병윤 철새생태관리과장은 "오는 11월 18일부터 20일까지 '2016 군산·서천 금강철새 여행'이 개최됨에 따라 추석 연휴 귀성객에게 철새축제와 어린이 행복도시 군산을 알리기 위해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만큼 가족단위 관광객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군산=문정곤기자

## 이선재 전북소방본부장 익산소방서 방문 직원들과 소통

이선재 전북 소방본부장이 12일 추석 명절을 맞아 일선 소방관서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직원들과 소통의 시간을 갖기 위해 익산소방서를 방문했다.

이날 이선재 전북소방본부장은 추석연휴 대비 화재예방 대책 및 특별 경계근무 추진사항을 보고받은 뒤 직원들의 의견과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등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또 119안전센터 및 구조대 등 현장활동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도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추석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대형화재 등 각종 재난사고 방지와 신속한 초기 대응에 힘써달라"고 말했다.

김석용 서장은"사고예방 활동 및 119 생활안전 서비스 강화, 생활민원 소방활동 등 추석 연휴기간 긴급대응태세 확립 및 특별경계 근무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익산=장양원기자

## 군산시, 추석연휴 12일~16일까지 '120 생활민원 종합상황실' 운영

군산시는 추석 연휴를 맞아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각종 생활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120 생활민원 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

'120 생활민원 종합상황실'은 도로, 교통, 청소, 수도, 하수, 보건, 환경, 식품 등 총 8개 분야 100여명으로 구성된 비상근무반을 편성해 도로 파손, 쓰레기 처리, 상하수도 긴급보수, 불법주정차 차량 지도 등 각종 생활민원을 처리한다.

연휴기간 중 생활민원 접수는 국번 없이 120으로 가능하다.

/군산=문정곤기자

## 군산소방서 '특별소방 안전대책'

군산소방서는 추석연휴 기간 중 시민들이 안전하고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추석연휴 대비 '특별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한다.

소방서에 따르면 도내 2015년도 기준 추석연휴 5일간 화재 38건, 구조 859건, 구급1602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주로 주거공간에서 발생(25%)했으며 구조는 연휴기간 벌초작업 중 안전사고가 증가 추세를 보였고 고속도로 혼잡 및 유동인구 증가로 교통사고가 증가 한 것을 분석했다. 이에 따라 군산소방서는 오는 13일부터 특별경계근무에 돌입 각종 재난·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화재취약대상 및 전통시장에 대한 특별순찰활동을 강화하고 소방출동로 확보 등을 통해 취약요인을 사전에 제거 화재예방 감시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군산=문정곤기자

# 신시도 자전거대여소 추석연휴 정상 운영

### 고군산연결도로 진입부 명성휴게소 주차장 입구서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군산시는 추석연휴 고군산군도를 방문하는 귀성객과 관광객들이 자전거를 이용해 고군산군도 전체를 여행할 수 있도록 신시도 자전거대여소를 정상 운영한다.

차량으로는 무녀도에 위치한 고군산대교까지만 갈 수 있어 선유도, 장자도, 대장도 등 섬 전체를 여행하려면 여객선이나 도보, 자전거를 이용해야 한다.

자전거를 이용할 경우 신시도 입구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고 자전거를 이용하면 바닷바람을 가르며 선유8경 등 아름다운 섬의 비경과 망주봉 산행도 경험할 수 있다.

자전거 대여소는 고군산연결도로 진입부인 명성휴게소 주차장 입구에서 운영하고 있다.

자전거 이용요금은 기본 3시간에 3000원, 1일 5000원이며 자전거 대여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 자전거 대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군산지역자활센터(463-9731) 또는 군산시 건설과(454-3632)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MBC 추석특집 프로그램인 '톡쏘는사이'에 '고군산군도 자전거길' 편이 16일 오후 5시30분에 방영될 예정으로, 행자부에서 실시한 2016년 아름다운 자전거길 100선에 선정될 정도로 아름다운 고군산군도의 경관을 확인할 수 있다.

/군산=문정곤기자

## 익산시, 추석 맞아 귀성객 · 시민을 위한 다채로운 공연 마련

족의 대명절 추석을 맞아 귀성객과 시민을 위한 다채로운 공연을 마련했다.

익산문화원(원장 김태현) 주관으로 서동풍물단(단장 김점기)이 선보이는 흥겨운 풍물놀이 한마당은 13일 오후1시 30분에 익산역 광장에서 펼쳐진다.

오는 15일 추석 당일에는 추석맞이 국악공연 '이래도흥 저래도흥' 공연이 배산체육공원 야외공연장에서 오후7시부터 열린다. 국악예술원 소리뫼(대표 김민수)에서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판소리, 무용, 가야금병창, 사물놀이 등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문화를 즐길 수 있는 좋은 기회다.

16일 오후2시 함열 아사달공원에서는 익산예우회(대표 김병문)주관으로 신명나는 노래 잔치 '추석 한가위 한마당'이 펼쳐진다. 난타와 벨리댄스 공연, 시민노래자랑, 초대가수 공연이 이어져 흥겨운 무대를 만들며 넉넉한 한가위의 기쁨을 나누는 시간을 갖는다.

시 관계자는 "다채로운 공연을 통해 고향을 찾는 귀성객과 익산시민들이 가족, 친지들과 함께 여유를 찾고, 활기차고 밝은 에너지를 느낄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정감 있는 고향의 품을 느낄 수 있는 문화 행사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익산=장양원기자

## 정헌율 익산시장 내일 민관 합동 일제방역

정헌율 익산시장은 새마을회자율방역단(회장 조흥찬), 민간소독업체인 가람솔 전북, 케이에스디, 마한환경, 익산시 방역기동반 등 총 100여명과 함께 내일 오전 황등면 소재지 일원에서 민관 합동 추석맞이 일제 방역을 실시한다.

정헌율 시장을 비롯한 소독업체 관계자, 시청 직원들은 이날 황등면 소재지, 황등 시장 일원의 공터와 주택가에서 방치된 폐기물을 수거하고, 잡초를 제거한다. 이후 휴대용 분무기 소독기를 이용해 황등 지역 곳곳을 방역한다.

정 시장은 "효율적인 위생해충 구제를 위해 봉사하고 있는 관계자 분들에게 감사드린다"며 "민·관 합동 방역소독과 환경정화 활동으로 감염병 예방은 물론 귀성객들에게 고향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심어 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익산시 새마을 지회와 익산시는 지난 5월부터 매월 1회씩 합동방역으로 모기 등 위생해충 구제를 하고 있다.

12일에는 29개 읍면동에서 일제 방역의 날을 운영해 추석 명절에 고향을 방문하는 가족들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기여했다.

/익산=장양원기자

익산경찰서 중앙지구대

## 다액 전화금융사기예방 공감치안 벌여

익산경찰서(서장 김성중) 중앙지구대(대장 김용대)는 지난 8일 오전 10시경 익산농협 남중지점에 "노인분이 5,00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 하려고 한다"는 신고를 받고 신속히 출동하여 전화금융사기 예방을 하여 안전한 추석명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공감치안을 구현했다.

경위 이내웅, 경사 임은상은 현장 출동하여 확인하여 보니 할아버지가 전화통화 한 불상의 자에게 건물 계약금 명목으로 현금을 제공하기 위해 인출 후 자가 보관하려고 하였고, 이를 수상히 여긴 농협 직원이 신고하여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할아버지는 " 내 돈을 내가 찾아가는데 왜 안되냐, 그러면 추석에 자식들 용돈이라고 줄 수 있게 지금 돈을 찾아 집에 가야 겠다."라며 경찰관에게 다른 핑계를 대고 현금을 인출하려고 하여 범죄에 이용당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경찰관들은 주거지 동행 후 경기도 평택에 거주하는 아들과 통화하여 사건내용을 전달하였더니 가까운 곳에 거주하는 자녀들이 없으니 경찰관분들이 아버지를 설득하여 도와달라고 간곡히 부탁했다.

이에 경찰관들은 노부부 둘만 거주하는 단독 주택에 보관하게 할 수 없어 추석명절에 현금이 필요하다면 9. 12. 10:00경 경찰관과 함께 농협에 방문하여 현금을 인출하여 중앙지구대에 보관 후 추석 명절 가족들과 동행 방문하여 인수할 수 있도록 할아버지를 설득하여 돌려보냈다.

중앙지구대 이내웅 경위는 "자칫 추석명절 전 할아버지의 소중한 돈을 사기 당할 뻔 했는데 지켜드릴 수 있어 다행이고, 현금이 많이 취급되는 명절기간을 맞아 사전에 범죄를 예방하여 주민들이 안전하고 화목한 명절을 맞이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익산=장양원기자

## 군산시 옥도면, 가뭄 예방 농업용수 공급 '총력'

유례없는 무더위와 장기간 계속되는 가뭄으로 한 해 농사를 포기할 상황에 놓인 10여명의 농업인이 옥도면(면장 김경배)과 군산시 건설과의 발빠른 대처로 농업용수를 공급할 수 있게 됐다.

용담댐 급수 등으로 가뭄 걱정 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육지 농가들에 비해 옥도면 도서지역 농가들은 말라버린 농업용 저수지로 인해 뚜렷한 대책이 없어 비가 오지 않으면 소중한 일 년 농사를 포기해야할 지경에 이르렀다.

이와 같은 도서 농민들의 어려운 사정을 전해들은 옥도면은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적극적인 대처에 나섰다.

옥도면은 신시도 안골저수지가 가뭄에도 마르지 않을 정도의 풍부한 수원을 보유하고 있음을 파악하고 수중펌프와 송수호스를 설치, 하루 400여톤의 농업용수 급수를 실시해 9월 중순경에는 적정량의 물을 논에 댈 수 있게 됐다.

신시도에 거주하는 최정봉 농가는 "비가 내리기만 기다려야 하는 도서농가에게 올 여름 무더위와 가뭄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주었는데, 이번 행정기관의 도움으로 희망이 생기게 되었다"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김경배 옥도면장은 "농업용수 공급에 총력을 기울여 영농 마무리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군산=문정곤기자

## 군산경찰서, 추석연휴 특별 교통관리 실시

군산경찰서는 추석연휴가 시작되는 13일을 기해 귀경이 끝나는 18일까지 교통사고 예방 및 소통을 위한 특별교통관리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군산경찰은 공원묘지 등 상습정체구역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으며, 추석연휴 기간 동안 1일 89명, 순찰차, 싸이카 30대를 동원하여 전통시장, 공원묘지 등 혼잡 장소와 상습 정체 교차로 등 혼잡구간 27개소에 대해 소통위주의 교통관리를 추진하여 시민과 귀성객들의 불편을 최소하기로 했다.

또한 이 기간 교통법규위반에 대해서는 계도위주로 실시했던 것을 음주운전, 신호위반 등 교통사고 유발행위에 대해서는 계도 없이 적극 단속할 방침이다.

김동봉 서장은 "그동안 경찰은 명절 분위기를 위해 계도위주의 교통경찰활동을 펼쳤으나, 일부 시민들이 교통단속을 않는다고 인식, 음주운전을 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다"며 "이에 군산서는 추석연휴기간 경미한 교통법규위반은 계도를 할 것이나 음주운전 등은 적극 단속하여 교통사망사고를 예방 하겠다"고 밝혔다.

/군산=문정곤기자